

2016년 9월 25일(침례식) “마음이 새로운 새 사람”(엡 4:22-24)

[1] 침례

침례의 원래 뜻은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침례식 때 사람을 물에 오래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에서 다시 나오면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22 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은 옛 사람의 죽음.

24 절,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란 말은 새롭게 태어남.

침례식은 물 속에 잠겨서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새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일까요?

23 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생긴 감각과 안목, 이해를 말합니다. 매번 왔던 곳이지만 오늘 공원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감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까?

이렇게 새로워지는 변화는 내가 옛 사람으로 살아 있을 때, 즉, 나의 의와 주장이 서있고, 내 생각에 빠지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옛 사람에 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죽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일어나는 **새 감각과 안목과 가치관**의 태동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옛 사람이 죽게 하는 동기와 의지는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운명을 의탁하고 놓아버려야 이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례는 바로 이 변화되는 인간의 중대한 사건을 상징하는 우리 몸의 행위인 것입니다.

[2]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갖는 구체적인 것들:

(1) 감동

예전에는 닫혔던 마음이 열리면 무엇보다 사랑과 선함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들을 때에도 비판하고 싶은 것을 찾기 보다는 사랑과 선함에 대해 더 열려야 합니다.

내 자신과 관계와 공동체와 사회가 성숙해 지려면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마음 받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나 또한 싫어하는 타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에게서 아무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를 만나면 그의 보이지 않던 작은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하든 나는 이 사람의 이런 면을 참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란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중요한 내적인 힘을 만들어 줍니다. 감동이 부족한 사람은 내적인 힘이 약합니다. 남들 눈치보지 말고 비판/비관하기 보다는 작고 섬세한 것에서부터 마음껏 감동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2) 감사

감사는 감동의 사건이나 삶의 신비를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감동에는 무관심하면서 특별한 선물이나 기적 같이 주어진 열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크게 감사하지만 평소 5 초도 숨이 안 멎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5 초의 멈춤없이 숨 쉴 수 있다는 신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하고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동과 감사가 없으면 삶이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 열린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선물로(유업,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맺음>

하나님의 자녀는 삶과 세상과 역사 속에 숨겨진 은혜와 신비를 발견하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져서 내 안에서 내적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리는 풍요를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게 됩니다.

<나눔의 질문>

1. 침례란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입니까?
2.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나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나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
3. 최근에 경험한 감동과 감사에 대한 일이 있었으면 나누어 보세요.